

科學技術 主役으로서의 技術士의 役割

權 五 錫*

今年들어 世界는 그 어느해 보다도 하루가 다르게 變化하고 있습니다.

UR 妥結 以後 나라마다 無限競爭時代에 접어들고 國家競爭力은 軍事力에서 經濟力으로의 對決樣相이 뚜렷해지고 自國技術保護에 血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BR, TR, CR 등의 新造語가 낫설지 않을 만큼 자주 舉論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立地強化로 開發途上國들의 處地가 날로 어려워질 것이 豫想되는 現實속에서, 우리는 지금 新韓國建設을 위한 靑寫眞을 提示하고 있습니다.

建設分野는 國家 基幹産業으로서 그 어느分野보다 社會에 미치는 影響이 크고 長期國土開發의 根本으로 周邊環境 變化 등의 連繫性 등이 充分히 考慮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建設分野의 處地는 檢討能力의 不足과 疏忽, 政治目的의 侍女的 役割, 各種 沮害要素의 慣行 등으로 建設災害 豫防業務는 制度的으로 改善해야 할 部分이 많습니다.

建設分野야말로 工場과 달리 同一品의 大量生産이 거의 없고 目的物을 現地에 直接 建立하는 것이 大部分으로 時間的, 空間的으로 作業內容과 與件이 繼屬 變化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自然環境까지도 克服해야 하는 어려움과 危險성이 많고 또한 日傭勤勞者들의 比重이 높고 數個의 工種이 複合的으로 有機的인 相互協調가 要求되는 分野이므로 災害豫防에 어려움을 달리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大部分의 事故가 事前豫防이 可能하고 在來型的 反復的

인 原因이 많았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衝擊을 주는 것입니다.

B. C 2000年 前 hammer 法典에서도 建築物의 不實로 使用者가 死亡하면 施工者는 死刑에 處한 것으로 記錄된 事實은 公共施設物의 不實이 얼마나 큰 罪惡인가를 代辯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有備無患”이란 말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水泳選手도 入水前에 準備運動을 꼭 합니다. 하물며 나날이 人爲的 環境의 變化가 要求되어 迷路와 다를 바 없는 建設現場에 있어서야 工程에 따른 諸般 安全教育이야말로 必須的인 것입니다.

建設業이 3D 職種으로 轉落하고 있습니다. 國民에게 疏外받는 職業은 發展할 수 없습니다.

安全管理는 醫學의 種類로 치면 豫防醫學에 該當되어야 합니다.

또한 安全管理는 바로 生産管理이며, 品質管理이고 利潤保障의 防牌일 뿐만 아니라 圓滿한 勞使關係 維持의 根本이 되므로 一石四鳥의 바로 그 根本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技術士들은 뜻을 모아 經濟回生의 主役으로 國家 競爭力을 提高 시켜야만 할 때입니다.

競爭力의 定義는 歷史的으로 意見을 달리 할 수 있지만 競爭力 優位確保는 누가 더 能率的으로 새로운 것을 創造하는가와 不良品을 내지 않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바야흐로 21世紀는 不實로 인한 不良品の

* 韓國技術士會副會長. (社)韓國建設安全技術協會會長. 建設安全, 土木施工技術士

Zero라는 信用社會의 經營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工產品을 비롯하여 모든 新技術의 Life time이 극히 짧아지고 있음을 直視하고 우리들의 知識은 바로 國民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世界가 認定하는 最高의 位置를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技術士들의 役割이 그 어느 때보다 重要的 時가 되었습니다. 科學技術의 發展 없이 先進國進入은 不可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周邊에서는 技術士들이 最高의 技術者로서 新韓國建設의 先導者 役割을 遂行할 수 있을까 하는 疑懼心을 나타낼 뿐 아니라 集團利己主義에 執着이 많다고 나무라기도 하며, 技術士가 되기까지 남보다 努力한 것은 認定하지만 資格 取得만으로 技術開發이 끝난 것인 양 여기는 분들도 많다는 指摘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現代化된 각종 새로운 狀況에 對應해가기 위해서는 既存의 安全管理가 아니라 科學的인 技法에 의한 安全에의 接近이라는 “安全管理의 科學化”의 重要性이 絶실히 要求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技術士들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格言과 같이 끊임없는 自己省察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團結하여, 技術士會를 名實相符한 求心點으로서 國家發展에 先導的 役割을 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第24회를 맞이하는 이 심포지엄을 통해 韓·日間의 科學技術交流의 活性化를 圖謀하여 韓·日 技術士가 世界의 科學技術을 主導하는 先導的인 役割을 다하는 契機가 되도록 우리의 覺悟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